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로스쿨,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다

Part I.

다양성과 공정성으로 나아간 로스쿨 제도

04
07
08
10
10

- 1 로스쿨은 출발선의 공정함을 고민합니다
- 2 법정 밖에서도 법조인은 사회를 움직입니다
- 3 다양한 삶의 경험이 법조의 깊이를 만듭니다
- 4 학생은 배우고, 시민은 도움받는 리걸클리닉
- 5 법을 사회에 돌려주는 변호사, 로스쿨이 길러냅니다

Part II.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11
12

- 1 빈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어집니다
- 2 합격을 위한 공부보다, 전문성을 위한 공부로

Part III.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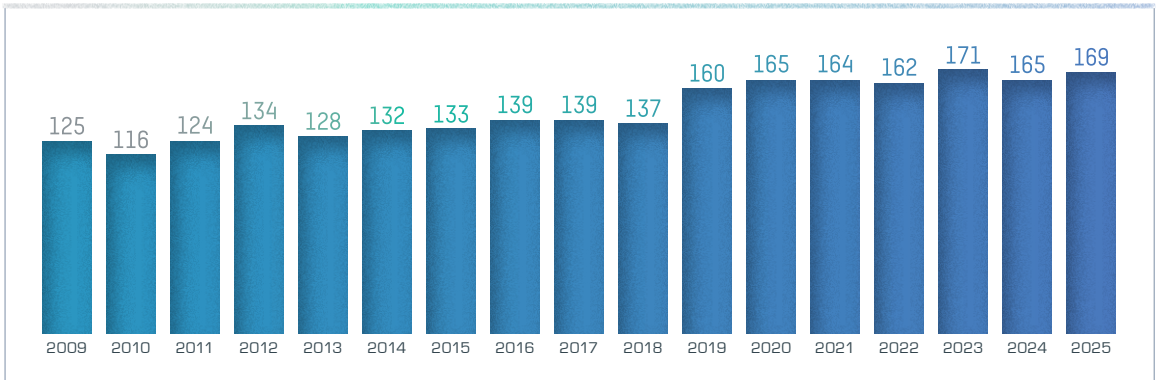
2,463명

1 특별전형 제도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전형을 운영합니다.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되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2,463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 현황(2009~2025학년도)

단위: 명



김재왕 변호사·교수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설 수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이 곧 '불편함이 결코 불가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로서, 제가 받은 지원과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로스쿨 제도의 가치를 더 넓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강일 변호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는 사이버대를 다니며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로스쿨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배려를 통해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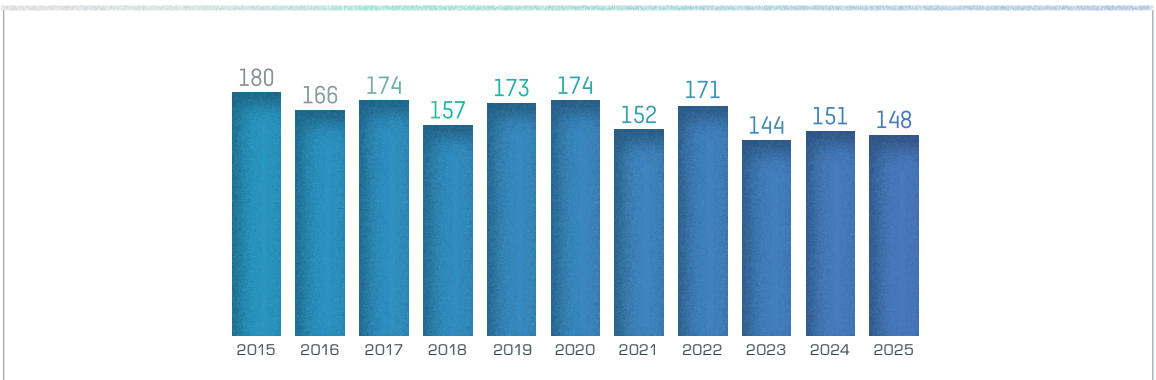
1,790명

2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로스쿨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법조 인재의 다양화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 왔으며, 그 결과 2025학년도까지 총 1,790명의 지역 인재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균형인재 선발인원 현황(2015~2025학년도)

단위 : 명



주성범 변호사 * 법무법인 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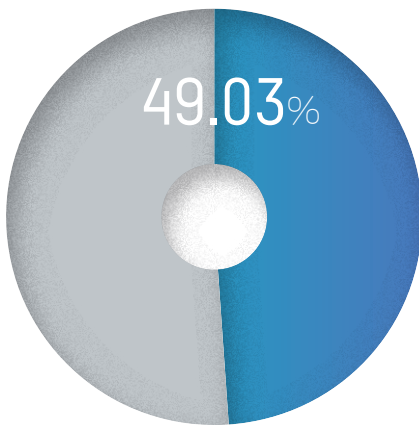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진학하고 경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대구 소재 법무법인 중원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는 제가 사랑하는 고향에서 공부해 지역 사회를 위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는 졸업 후 지역 법조인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4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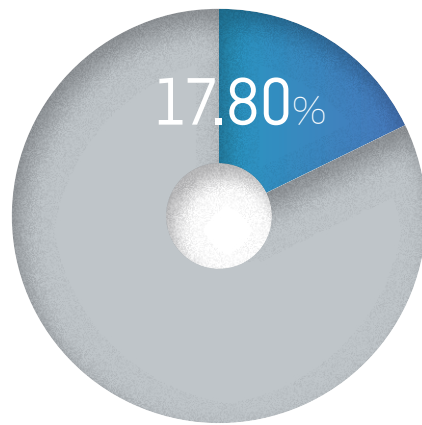
3 장학금 제도

로스쿨은 소득 3구간 이하 학생과 특별전형 입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전체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으며, 이외에도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같은 해 전체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49.03%)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장학금 수혜자 비율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자 비율



재학생 대비 전액장학금 수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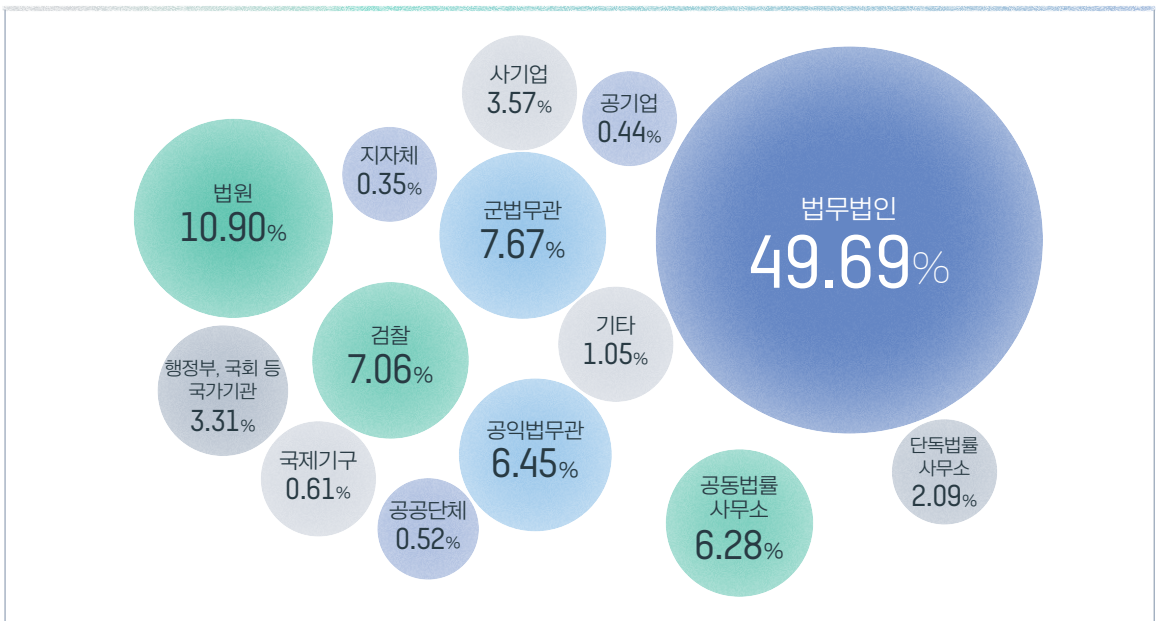
하현수 학생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시절에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이 됐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장학생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공부와 함께 병행해야 했습니다. 반면 로스쿨을 다니면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매 학기 학비와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해주기에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법조인은 사회를 움직입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법무법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 행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으로 진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외연을 넓히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진출 현황(2월 말일, 초기 기준)



김소리 변호사 * 밝은책방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고, 법과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책방이라는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동인권, 여성 인권, 소수자 인권, 환경권, 동물권 등 권리 중심으로 서가를 큐레이션하고 있고, 법과 인권, 동물권에 관한 강연, 북토크를 열고, 전시나 공연 등 예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책을 읽고 문화 활동을 하는 동시에, 법과 사회를 공부하는 곳,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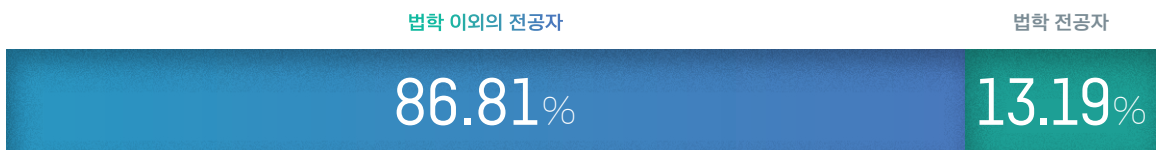
Part 1.-3

다양성과 공정성으로 나아간 로스쿨 제도

다양한 삶의 경험이 법조의 깊이를 만듭니다

로스쿨 제도는 전공·연령·출신대학의 경계를 넘어 법조계에 새로운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법학뿐 아니라 이공계, 인문·사회, 예체능 등 여러 전공의 인재들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 각지 대학 출신자들이 고르게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50대 이상의 법조인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며, 우리 사회 법조의 저변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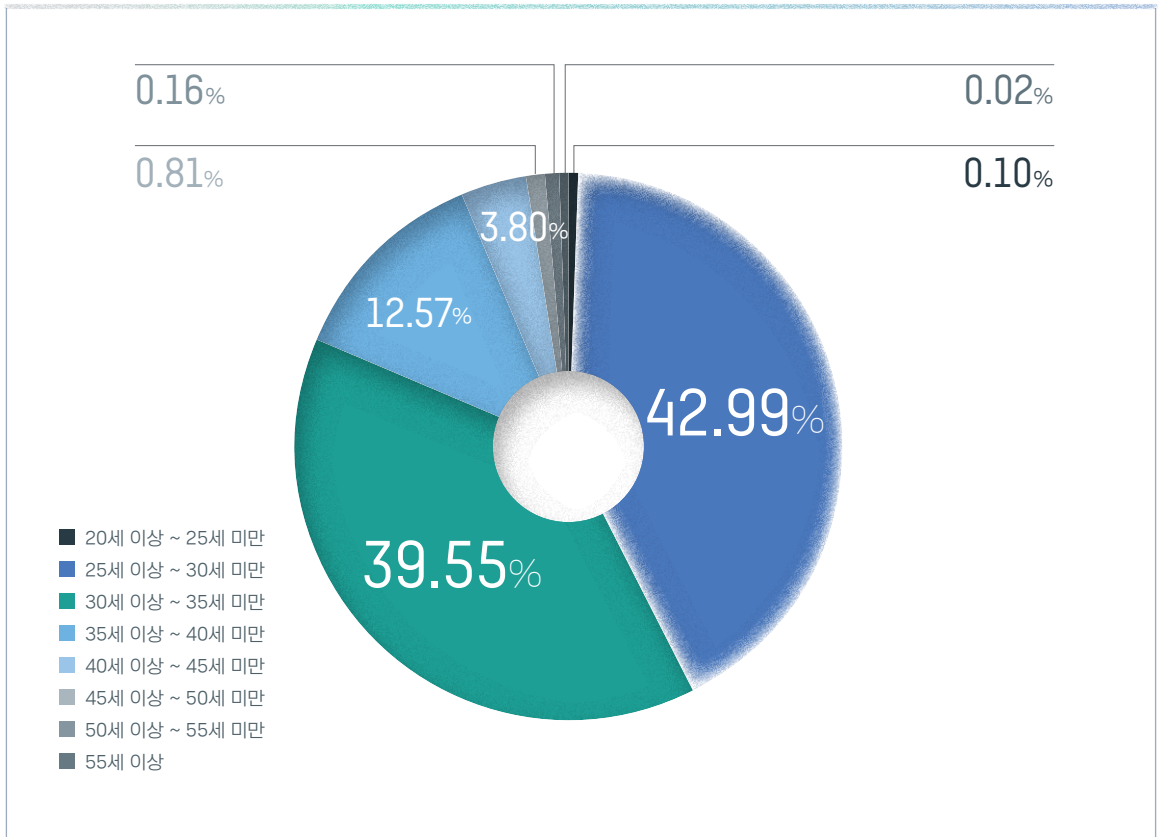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



권진성 변호사 * 권진성 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저는 공공근로와 경비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20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고시생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53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용기를 내어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이 없었다면 제 법조인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령별 현황(제1회~제14회)



이나비 학생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로 학부 성적이 좋지 않았고, 휴학도 거듭했습니다. 예술과 창업 준비처럼 법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했고, 공무원도 대기업도 아닌 작은 회사들에서 전문 자격증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도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조금은 잡다하고 별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도 그 취지에 맞는 사람 아닐까요? 어쩌면 우여곡절을 가진 법조인이 세상에는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Part 1.-4

다양성과 공정성으로 나아간 로스쿨 제도

학생은 배우고, 시민은 도움받는 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 교수와 현직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활동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상담과 사건 처리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쌓고, 지역 주민들은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규 학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책 속의 법학’을 넘어 ‘현실과 맞닿아있는 법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감하고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편취당한 상속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담당 변호사님을 도와 말소등기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위 활동들을 통해 제가 배우는 법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며, 스스로의 성공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Part 1.-5

법을 사회에 돌려주는 변호사, 로스쿨이 길러냅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헌신하는 변호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서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지은 변호사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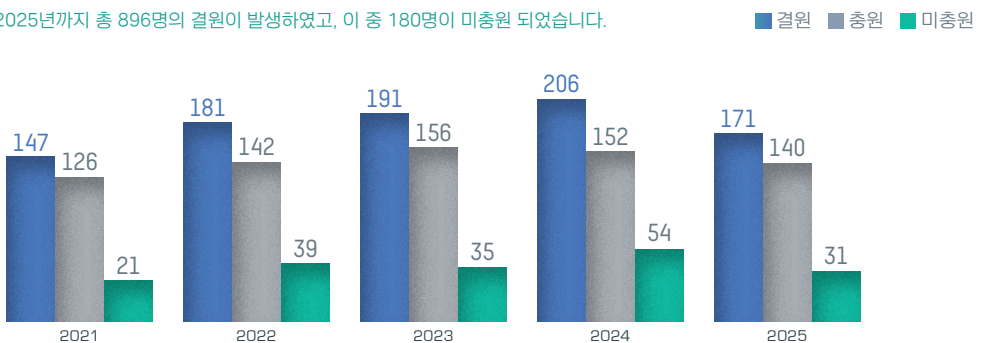
로스쿨 졸업 후 2014년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설립했습니다. 감동에서는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등에 대한 무료 소송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0건의 무료 법률상담과 200건의 무료 소송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전담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빈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기회는 이어집니다

결원충원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스쿨 입학정원) 제3항 및 부칙에 따라 로스쿨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합니다.

최근 5년간 결원충원 현황('21~'25)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96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80명이 미충원 되었습니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간 편입학으로 인한 부작용(상위권 로스쿨로의 연쇄 이동에 의한 로스쿨 제도의 황폐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입학정원에 따른 입학 기회를 정당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의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이에 따라 로스쿨 운영의 불안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행령 부칙 개정에 따른 한시적 시행이 아니라, 25개 로스쿨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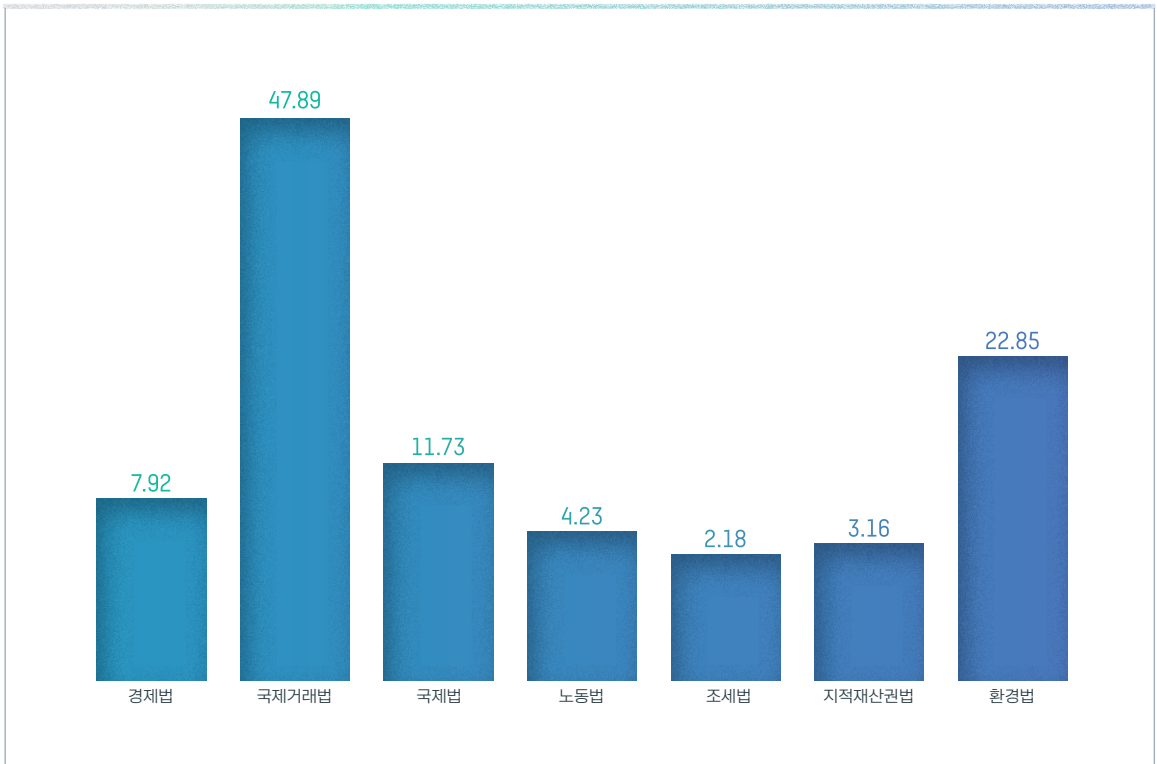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5. 2. 27. 2021헌마548]

결원이 발생한 법학전문대학원이 편입학을 실시하여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들이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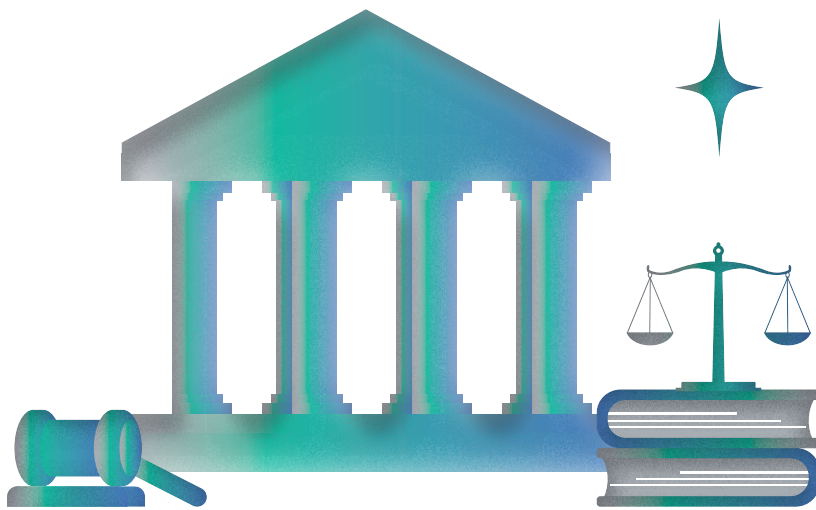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전문성을 위한 공부로

12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응시자 비율 현황



현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시험과목)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1항 [별표1]에 따라,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선택과목 논술형 시험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위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지정하여 논술형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목 논술형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수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오히려 시험을 위해 단기 속성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시험의 합격을 위해 특정 선택과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 논술형 시험과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영기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은 법철학, 법사회학 등 일부 법과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모든 개별 법영역에서 해당 실정법이 왜, 어느 경로로 분화되었으며 정당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논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이들의 기본 소양을 이룬다. 누구든 모든 법규정, 판례, 학설을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법의 원리와 토대를 심도 있게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만의 역량을 무엇으로 드러내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AK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s://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외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 로스쿨 제도의 출범과 함께 설립된 협의체로, 우리 사회 법학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주관과 학술연구, 국내·외 교류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개선과 공익적 법조인 양성, 입법·정책 제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며, 로스쿨 제도의 발전과 함께 정의로운 법조인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